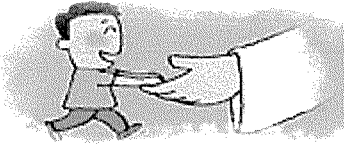


◀기쁜 우리 날들▶ 그런 사람이었으면

김성국



나를 알아주는
한 사람이
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.

초가을 반달에 그리움 물들면
조용히 일어나
혼자 있게 비켜 주는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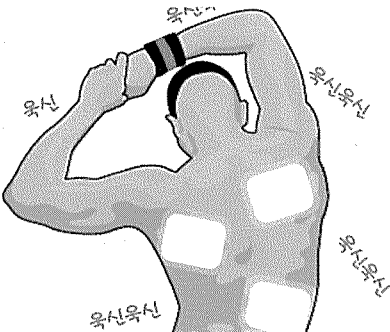
가시 찢린 손톱끝 같은 마음일 때
한참을 옆에 앉아
말이 없어 더욱 위로가 느껴지는 사람

언제든지 품어 줄 얼굴로
내 웃음도 울음도 읽어내는 사람

주저앉고픈 억울함을
자기 몫인 양 실컷 들어주고는
이제 됐지? 하며
나를 털고 일어나게 하는 사람

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고 싶을 때
비 노래 흥얼거리
젖은 마음을 더 적셔 주는 사람

거룩하지 않아
강히 내 보이지 못한 이 속마음을
알고도 감싸주는 그 한 사람이
그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.



◀그림 말씀▶ 신앙의 근육통

신앙생활 하다보면 기도도 성경도 읽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. 신앙의 근육통에 걸린 것입니다.

하지만 아프고 하기 싫어도 꼭 참고 운동하다보면 어느새 근육이 풀어지듯 기도하기 싫고 성경읽기 싫어도 꼭 참고 하다보면 어느새 신앙이 더 튼튼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

| | | |
|--|---|--|
|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| 밀줄치며 읽는 성경! 보혈의 능력 (히4:12-13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 |
| 제10권 13호 | 기초성경공부이스,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 | 2008년 3월 30일 |
| ☎ 369-5077. Howe St. City(Ak Girls Grammar School Hall) www.calvary.org.nz | | |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나는 이렇게 담배를 끊었습니다.

탈런트 김혜자



"딸 새벽기도 덕일까...기적같은 금연"

첫임신때 입덧 없애려 접한 후 30년 골초 내가 담배에 처음 손을 댄 것은 스물 셋, 첫 임신 때였다.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 기 어려울 정도로 입덧이 심했다. 보다 못한 남편이 "담배를 피워보면 좀 괜찮아 진다더라" 며 권했다. 임신한 몸에 담배라니!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 조금씩 피우며 울렁거림을 달랬다.

그 후 30여 년간 나는 담배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오죽했으면 연예인 '체인 스모커' 를 뽑을 때 늘 1위를 차지하곤 했을까.

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에 갈 때마다 "하나님,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" 라고 기도하곤 했다. 그런 내게 '사건' 이 일어난 것은 6년 전 이맘때였다. 어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, 이제껏 피던 그 맛이 아니었다. 깜짝 놀라 껌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다.

그날 밤 미국 사는 딸이 전화를 했길래 "고은아, 정말 이상하다, 담배 맛이 싫어졌다" 고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"하나님, 감사합니다"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. "엄마,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,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." 저 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 온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무려 백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새벽기도를 다녔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는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. 그 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이 끊겼다. 다행히도 금단 현상이 전혀 없었다. 누가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. 군것질이 늘어 살이 찐다든가 하는 부작용도 없었다.

30여 년간 단 한 번도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.

◀말씀 따라 행하기▶

매일 새롭게 배달되는 신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. 그러나 늘 똑같은 소식과 사건이 기록된 성경은 늘 새롭다. 읽고 새로워지자

◀인품 따라 행하기▶

아내가 '겨울 연가'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울면 조용히 티슈를 건네 주어야 아내의 최지우처럼 그대에게 안길 것이다. 설령 그대가 배웅준이 아니더라도 말이다.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& Confession | 성가대 | 다 같이 |
| *찬 송 Hymn | 34장 | |
| 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 | 사 도 신 경 | |
| 찬 송 Hymn | 466장 | |
| 기 도 Pray | | 권광순 권사 |
|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| 누가복음23:13-35 | 인 도 자 |
| 성가대 찬양 Choir | | 나무십자가 성가대 |
| 설 교 Sermon | 엠마오에서 무슨 일이 | 김성국 목사 |
| 찬 송 Hymn | 483장 | 다 같이 |
|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| | 인 도 자 |
| 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 | | |
| 특 송 |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3기 | |
| 응 답 송 Response Song | 여기에 모인 우리 | 다 같이 |
| 축 도 Benediction | | 김성국 목사 |

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\$ 3,138 총액:\$ 430,590.74

갈보리 성경 100독: 13독 안정실 장로.
14독 임성용(학생부,장기숙 집사 다들)

◆3월 예배위원◆

◆3월 교회력◆

| 일자 | 기 도 | 주차안내 | 안 내 |
|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6 | 김교섭 | | |
| 13 | 김순자 | 서재오 | 안내부 & 권사 |
| 20 | 김영길 | 최현철 | |
| 27 | 노은숙 | 황존직 | 새교우: 백제성 노은숙 |

| | 주일 & 예배 | 모 임 |
|----|---------|----------|
| 6 | | 구역예배(11) |
| 13 | | |
| 20 | | 구역예배(25) |
| 27 | 이삭줍기주일 | |

| | |
|---|--|
| 『2008 신앙생활』 밀줄치며 읽는 성경!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| 『교회 등록』 *3주간 예배,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|
| 주일예배:아동,학생:오후 1시 수요예배: 7:30 pm | 새벽기도회: 금 5:50 청년부:수요 7:00 pm |

- 『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3기』를 마쳤습니다
*김반석.김영길.김재연.김지혜.노은숙.서재오
박영숙.이수은.정이지.최재학.황경임.
*함께 쌓아올린 기도는 우리교회를 떠받칠 기둥이 될 것입니다.
- 『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4기』 <일시> 4월1일 저녁7:30분. 교회사무실
*기도하며 세울 우리의 성전건축을 위한 4기 기도모임 성도를 기다립니다.
<담당 & 참가신청> 김순자 권사 (☎837-2113)
- 정기당회:Tea Time 후 모입니다
- 성전건축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.
*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.
이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성전을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.
- 『갈보리 성경100독』
*말씀 읽을 때 기록해지는 마음 느껴지지 않던가요? 그때가 쓰여졌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읽을 때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.
- 청년부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한인회 행사참여(예고)
<일시> 4월 12일(토) <장소>
*청년들의 거룩한 뜻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.
- 동호회 친선골프모임(예고)
<일시> 4월 12일(토) <장소> Takapuna Golf Club <신청>백제성 집사
- 주보에 실릴 ‘믿음의 글,간증,수필,기도문,시,한 줄로도 긴 생각’ 등을 기다립니다.
- 다음주일에는 Daylight Saving Time이 끝납니다.(밤 10시--->9시)

◀한 줄로도 긴 생각▶

보름달이었는데 어느새 반달이 되었네.
절반으로 줄여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밝고 맑구나.
김성국

